

1986년도

대한기생충학회 춘계 학술발표회를 보고



주 경 환

학문의 발전은 그 학문에 맹목적이다
싶이 열광하고 또 쉽게 흥분할수 있
는 진취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을
수록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던가. 1986년
도 대한기생충학회 춘계학술발표회가 열
린 지난 4월 25일의 부산대학교 의과대
학 강당은 찌푸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
여명의 회원들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매
년 두차례, 봄 가을로 나누어 개최되는
본학회는 이미 20년을 넘겨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였다.

100명 가량의 열성회원들은 항상 진지
한 발표와 예리한 질문, 그리고 보다 발
견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론으
로 학술발표회를 보람있는 학문의 마당
으로 이끌어 왔으며 원로회원들의 따끔
한 충고는 젊은 후학들에게는 항상 사
랑의 매로서 이 나라의 기생충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다. 이번 학회에서도 13
편의 흥미있는 연구발표 및 토론이 약 3
시간 가량 계속되었는데 주제별로 볼때
역학조사 3편, 치료에 관한 발표가 2
편, ELISA 법을 위주로 한 진단 및 치
료결과 판정에 관한 보고가 2편, 간흡
충감염 토끼에 있어서의 간기능 검사치
와 β -glucuronidase 활성치등 생화학
적인 면에서의 보고가 2편, 계통분류에
관한 보고 1편, 면역학적인 면에서 흥
선이 Naegleria 뇌수막염에 미치는 영
향, 그리고 Echinostoma cinetorchis
의 제 2중간숙주의 보고 및 증례보고가
각 1편씩 있었다.

이중 다음 몇가지는 건강소식 독자들
에게도 흥미 있을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
다. 첫번째 보고였던 '대구시민의 이질
아메바 감염상'에서는 1986년 2월에 대
구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충류인 이
질아메바의 감염률을 보고하였는데 아직
검사대상자는 192명에 불과하나 감염률
이 22.4%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질아메
바는 복통, 설사 등 체내 병변을 일으키
고 대장에 궤양, 염증을 야기하는 병원성
이 있는 기생충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자인 백두현 선생은(계명대) 아직 이런 높은 감염률이 나오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며 특별히 증상을 나타내는 예는 없어 심각하지는 않으나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새로 나온 구충제인 Flubendazole의 구충효과가 두 대학에서 각각 발표되었는데 회충, 요충에서는 1회에 한 알을 먹어서 100% 치료됨을 확인하였고 편충에서도 82.1%가 치료되는 등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복용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으므로 앞으로 임상 및 집단 구충제로서의 적용이 기대된다고 한다.

원주의대의 양용석 선생등은 Echinostoma cinetorchis라고 불리우는 흡충의 알을 두명의 입원환자에게서 발견하고 플라지판텔로 치료한 다음 충체를 얻어 확인하였는데 두사람 모두 민물고기나 논우렁이를 날로 먹은 경험이 많은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날로 먹었을때 이 기생충에 감염되는지는 아직 조사단계에 있지만 여하튼 민물고기나 논우렁이의 생식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증양의대의 조승열 교수등의 보고는 최신의 진단방법인 ELISA법을 이용하여 뇌낭미충증의 혈청학적 진단을 시도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의 혈청학적 진단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인데 이 진단법의 민감도(감염자

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는 90% 이상이었고 특이도(비감염자에 대해서 검사했을때 음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8.5%에 이르는 등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낭미충증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뇌낭미충증은 유구조충이 우리 몸에 감염되었을때 장 안에서 유구조충의 알이 부화되거나, 또는 유구조충에 직접 감염되지 않아도 유구조충의 알이 외부로부터 우리의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왔을때 애벌레로 되어 뇌로 간 다음 병을 일으키는 것인데 주로 간질, 발작, 두통의 증상을 일으킨다. 지금까지는 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최근에 이르러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진단에 큰 도움을 받아 왔으나, ELISA법을 이 질환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감염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연제는 영양군 보건소에서 발표한 영양군내의 머릿이 감염상황 보고였는데 이 지역내 국민학생과 중학생 3,202명을 조사한 결과 46.6%가 감염되어 1984년에 비해 전혀 차이가 없으며, 적절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머릿이 감염의 만연은 1984년에 같은 조사팀에 의해 처음 보고되어 선진 조국을 지향하는 시점에 있어서 한가닥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아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관계당국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 빠른 시간내에 집중적인 구충사업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보고들은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들로서 우리나라 기생충학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번 봄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좋은 연구업적의 발표라는 의미 이외에도 우리들 기생충학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생충학교실이 창설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간 부산대학교에서는 송수복교수등이 거의 살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연구업적을 내어 기생충학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이에 학교측은 더 좋은 환경하에서 더 많은 연구업적을 바라는 뜻에서 기생충학교실의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군 보건소에서 발표한 영양군내의 머릿 이 감염상황 보고였는데 이 지역내 국민학생과 중학생 3,202명을 조사한 결과 46.6%가 감염되어 1984년에 비해 전혀 차이가 없으며, 적절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를 해주신 학교당국에 기생충학을 하고 있는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한다. 그밖에 아직 독립된 기생충학교실이 없는 대학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모두 기생충학교실이 생겨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기생충학회는 튼튼한 반석위에 올라선 것으로 생각해도 좋지않을까. 오류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서도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남이 분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학문(?)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한 우리의 대한기생충학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봄학회에 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경일회장과 부산의대 송수복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의박)